

# 금어선원을 통해 본 한국 선원(禪院)의 근대성

박재현\*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금어선원 설립의 역사 의식과 역할 의식
- III. 금어선원 운영의 근대성과 현대사의 흔적들
- IV. 선학원 중앙선원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금어선원과의 관계
- V. 맺음말

## | 국문초록 |

범어사 금어선원은 한국불교의 근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어선원을 비롯해서 범어사 산중에 선원이 개설 운영되는 과정에서 뚜렷한 행적을 보인 두 인물은 송경허(宋鏡虛, 1849~1912)와 오성월(吳惺月, 1865~1943)이다. 이 두 사람은 선사(禪社)를 개설하여 한국 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근대적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역사 의식과 역할 의식을 견지하는 근대적 선풍을 구현하는데 노력했다.

금어선원에서 시작된 근대 선원의 면모는 선학원 중앙선원의 개설로 더욱 구체화 전국화 되었다. 일제강점기 선학원의 설립은 불교사적 사건인 동시에 정치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선학원은 일반적인 사찰과는 달리 재단법인이라는

\* 동명대학교 선명상치유학과 부교수 / upaya2013@gmail.com

법률적 정체성을 가지고 근대적 상호부조 형태인 공제회 내지는 협동조합 운영방식을 도입한 근대적 사찰 운영 형태를 취하였다. 따라서 선학원이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는 한국불교의 근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범어사 금어선원과 선학원 중앙선원은 인적·물적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근대 신문물인 교통 통신의 발달로 경성과 부산은 지리적으로 먼 거리였지만 인적·물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서구 근대문물이 가장 먼저 유입되는 도시인 부산에 위치한 범어사는 근대적 교통 통신망에 힘입어 근대적 선원 운영시스템을 채택하고 경성으로 확장해 나갔으며 그 구체적 결과물이 선학원 중앙선원이다. 범어사 금어선원과 선학원 중앙선원은 한국 근대불교의 근대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핵심어: 근대불교, 근대성, 선, 범어사, 금어선원, 선학원

##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근대선원 안거방함록을 밑자료로 하여 범어사(梵魚寺) 금어선원(金魚禪院)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 선원(禪院)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금어선원은 특정 지역의 개별 사찰이나 선원의 성격을 넘어 한국 근대 선불교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를 갖는다. 금어선원은 1930년대 여섯 곳의 범인관리 선원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단순히 개별 사찰에 소속된 선원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한국 근대 선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sup>

1) 조명제는 근대불교의 경향 내지 특징을 잘 드러내는 한 사례로 바로 범어사를 들고 있다. 그는 범어사를 중심으로 한 근대불교의 성격이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범어사가 특정한 지역의 전통사찰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명제,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梵魚寺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13, 2006, 3쪽.

금어선원은 그 인적 구성과 선원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1935년에 구성된 여섯 곳의 법인관리선원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어선원이 경성에 소재한 선학원 중앙선원보다 이른 시기에 개설되었다는 점, 중앙선원 개설과 운영을 위한 자금을 금어선원이 소재한 범어사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 중앙선원 운영에 금어선원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당시 금어선원과 선학원의 관계 및 의미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면, 금어선원은 여섯 곳의 법인관리선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원이 오히려 범어사 경성지점 선원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닐까 싶다. 이러한 이해는 철도 교통의 등장이라는 사회사적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근대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소재 가운데 하나가 교통이고 그중에서도 철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고, 특히 경부선 철도망의 개통이 갖는 의미는 지대할 것인데, 당시 경부선은 기점이 부산역이고 종점이 서대문역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뒤 취한 조치가 그 이전까지 한성이 가지고 있던 수도로서의 이미지와 권위를 없애는 것이었고, 그 일환으로 명칭을 경성부로 바꾸고 조직의 위상을 경기도가 관할하는 지방행정 단위로 격하했다. 경부선을 교통축으로 성립된 근대적 공간의 양 끝에 범어사 금어선원과 선학원 중앙선원이 있었고, 중앙선원은 금어선원에서 하행선을 타고 내려가 닿는 곳이고, 반대로 금어선원은 중앙선원에서 상행선을 타고 올라가 닿는 곳이었다.

이렇게 범어사 금어선원은 특정 지역의 개별 사찰이나 선원의 성격을 넘어 한국 불교의 근대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sup>2)</sup> 여기서는 먼

2) 이 논문에서 근대성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전반 서구 문명사의 한 단계에서 나타난 특

저 근대선원방함록을 주요 자료로 하여 금어선원의 내력과 인적 구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금어선원의 운영상의 특징을 안겨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어사 금어선원과 선학원 중앙선원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근대 선원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 Ⅱ. 금어선원 설립의 역사의식과 역할의식

범어사 사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따르면 범어사에 선원이 처음 개설된 때는 1899년 겨울이었다. 그해에 오성월(吳惺月, 1865~1943)이 금강암에 금강선사(金剛禪社)를 개원했다. 그는 대한 광무 3년(1899) 11월에 금강암에서 임시 선회를 열고 선원 개설에 관한 일정을 논의한 후 12월에 선원을 개설했다. 당시의 발기인은 성월이었지만 회중은 성월을 포함한 수옹혜윤(睡翁惠允), 월송금홍(月松錦洪), 유운주연(乳雲周演), 휴진(休眞), 법능(法能), 봉성(奉性) 등 7인이었다. 안겨 기한을 9순(旬)으로 정하고 참선을 시작했으며 이듬해인 1900년 2월 15일에 해제했다.<sup>3)</sup>

금강선사를 이어서 1900년 10월에 안양선사(安養禪社) 개설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순차적으로 내원선사(內院禪社), 계명선사(鷄鳴禪社), 원효선사(元曉禪社), 원응선사(圓應禪社), 대성선사(大聖禪社)의 개설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4월에는 금어선사(金魚禪社)가 개

---

정의 이념이나 양식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근대시기의 한국사회 특히 한국불교가 개화사상과 신문물을 접하면서 그 이전의 전통 불교에서 견지했던 것과는 구별되게 새롭게 수용하거나 지향하게 된 가치를 뜻한다.

3)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홈페이지 금어선원 소개편 참조.

[https://www.beomeo.kr/idx/idx04\\_1.php](https://www.beomeo.kr/idx/idx04_1.php)(검색일: 2021. 04. 01).

설되었다.<sup>4)</sup>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에서 발간한 『근대선원방함록』에는 1909년 하안거부터 1957년 동안거까지의 금어선원 방함록이 수록되어 있다.

범어사는 1910년대에 이미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선 중심을 표방한 사찰이었다. 근대불교 시기 범어사의 선원은 수개처에 달하였다. 당시 범어사 선원의 현황을 전하는 기록은 1920년에 작성된 「범어사선원연기록청규록(梵魚寺禪院緣起錄清規錄)」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범어사 사내에 금강암에 금강선사 등 모두 9개의 선원이 개설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이 선사(禪社)가 임시 선회(禪會)의 형태에서 시작되었으며 부침이 잦았지만 1910년 이전에 이 같은 선풍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sup>5)</sup>

범어사와 그 부속 암자를 중심으로 선사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두 인물이 있는데, 오성월과 송경허이다. 범어사의 선풍은 무엇보다 범어사 출신 승려인 오성월의 헌신과 수행 정신에 의해서 추동되었다. 경허는 오성월의 초청으로 1899년에 범어사로 왔다. 오성월이 선원의 사관 측면을 담당했던 비해서 경허는 이관 측면을 담당했다. 경허는 범어사로 초청된 다음해에 잠시 해인사에 머물렀다가 1904년까지 범어사를 중심으로 수선결사를 주도했다. 그것이 이른바 북행(北行) 혹은 산수갑산행으로 불리는 경허의 미묘한 말년 행적에 앞서 남긴 선문 안쪽에서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언뜻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보이는 송경허와 오성월, 이 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강렬한 역사의식과 역할의식이었다. 이는 출세간을 지향해온 전통적인 선 수행자에게서는 보기 드문 것이고, 선의 근

4) 구한말 범어사의 禪院개설 현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조명제,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梵魚寺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13, 2006, 5쪽.

5)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근대선원방함록』,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2006, 30~31쪽 참조.

대성이 드러난 부분이다. 경허는 「범어사계명암수선사방함청규(梵魚寺鷄鳴庵修禪社芳啣清規)」(1902년 10월 작성)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몸으로 선사(禪社)에 참여하고 이름을 선책(禪冊)에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인연이다. 하지만 [단지] 향기를 후대에 전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뒷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볼 만한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의 근기가 미약하고 정법이 경박해진 상황에서, 정 법안장을 지키고 유통시키는 일은 실로 역량 있는 형제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세상은] 무상하여 덧없이 빠르고 생사는 큰일이니, 어찌 하릴없이 한평생을 보내겠는가.<sup>6)</sup>

여기서 경허는 방함록이 단순히 선원의 출석부 정도로 여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뒷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볼 만한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그는 방함록 작성의 의미를 역사 의식에서 찾고 있다. 선문의 정법이 사라진 시기에 선사 결성을 통해 출가수행자의 본분과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재확인 하고, 그것을 방함록이라는 형식을 통해 후세에 전함으로써 선 수행 전통이 후세에까지 면면히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방함록을 쓰는 이유가 뒷사람들에게 감계(鑑戒)로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해인사 수선사 방함인(海印寺修禪社芳啣引)」에서도 거듭 확인된다.<sup>7)</sup>

- 6) 「梵魚寺鷄鳴庵修禪社芳啣清規」, 『鏡虛集』, 韓佛全11,599b. “蓋身祭禪社 名載禪冊 一段因緣 然不是傳芳于後 使之有所思慮 當人根機微劣 正法澆漓 使正法眼藏 扶護流通 實賴有力量兄弟 況無常迅速 生死事大 豈可因循空過一生乎.”
- 7) 「海印寺修禪社芳啣引」, 『鏡虛集』, 韓佛全11,600b. “書芳啣所以然者 示後人也. 示後人也者 以何意也. 身隣泡瀾 命危風燈 知策勤者 是誰也. 法性本空 慧日長明 能悟入者 又是誰也. 後之視今猶今之視昔也 后之視后又猶后之視今也 指點得分明矣.” 원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방함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뒷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방함록이라는 독특한 선원 기록 양식이 한국불교 전통에서만 확인되고 더욱이 경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강렬한 역사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경허를 출세간 지상주의자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양에서 역사는 곧 거울[鑑]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핵심적 이유가 감계 즉 후세의 사람들이 비추어 보아 스스로 조심하고 바로잡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sup>8)</sup> 경허는 단지 전통선을 고수하는데 힘쓴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 이전까지 출세간만을 지향해온 선에 새롭게 역사의식과 역할의식을 결부시켜냈다.

필자는 이러한 특징이 경허의 선에서 보이는 근대성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역사의식이 곧 근대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 이전에도 동양사회에서는 강한 역사의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동양에서 역사는 종교와 신(神)을 대신할 만큼 의미와 비중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교 적어도 선(禪)에서는 근대이전에는 역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는 경허의 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간파한 사람이 오성월이었고, 경허를 범어사로 초빙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오성월은 사관승이었고 대처승이었다.<sup>9)</sup> 그래서 유교법회(遺教法會)에도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다. 금어선원 방함록에서도 그의 소임은 중

---

다. 뒷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람의 몸은 물거품과 같고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으니 체쩍질하고 힘써야겠다고 알았던 자 누구였던가. 법성은 본래 공하고 지혜의 태양은 오래도록 빛나니 깨달을 수 있다고 여겼던 자 또 누구였던가. 지금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듯이 뒷사람들은 오늘을 돌이켜볼 것이고, 뒷사람들이 지금을 돌이켜 보듯이 [뒷사람들의] 뒷사람들도 뒷사람들을 돌이켜볼 것이니, [방함록을 쓰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다. 아, 이 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울로 삼아 경계할 일이다.”

8) 박재현, 『현대 한국사회의 당면 문제와 경허(鏡虛)의 사상: 사회 윤리적 맥락을 중심으로』, 『禪學』 34, 2013, 7~36쪽 참조.

9) 한태식(보광), 『백용성스님과 한국불교의 계율문제』, 『대각사상』 10, 2007, 90쪽.

중 조실이나 선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 원주나 화주 소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어선원 방함록의 첫 기록인 1909년 하안거부터 오성월은 원주, 조실, 선덕, 화주 등의 소임을 맡아 안거에 참여하였다. 그는 금어선원의 운영과 살림살이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오성월은 금어선원이 처음 개설된 1901년부터 1938년까지 화주 소임을 담당했다. 또 주지로 있을 때에는 경내에 금어선원을 개설했고, 선원이 개원된 1909년 여름부터 이후 30년 동안 빠짐없이 방함록에 화주 소임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살림살이만 챙긴 것이 아니라 경허를 초빙하여 선 수행 전통을 확립하려고 애썼다.<sup>10)</sup>

금어선원 방함록에서 오성월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시기는 1939년부터이다. 이 시기가 바로 경성 선학원 중앙선원의 개설 및 전국적으로 법인관리선원이 꾸러진 시기와 일치한다. 1930년 후반부터 오성월의 역할 범위는 금어선원을 넘어 선학원 중앙선원과 전국의 법인관리선원 전체에까지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오성월은 근대 조선 불교계에서 분명한 자신의 역할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선원의 방함록 서문에서 수좌들의 역사의식과 역할의식을 읽을 수 있다. 수좌들은 방함록을 남기는 것을 수행한 내용이 ‘영구유전(永久流轉)’, ‘절물유실 영구유전(切勿遺失 永久流轉)’, ‘시후인야(示后人也)’ 하는 것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자신들의 수행 기록을 적극적인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 수행자들의 감계(鑑戒) 자료로 인식될 것으로 고

10) “일제하의 범어사 금어선원의 방함록을 조사하였더니, 오성월은 선원에 대해서는 지극정성의 후원, 정성을 다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09 院主祖堂, 1910~1911 원주, 1912 祖堂, 1913 禪伯, 1914 監院祖堂, 1915 祖堂, 1916 선백 원주, 1918 ~1919 선백, 1920 현식, 1923~1938 化主, 1939 공동으로 화주, 1943 禪德등으로 나온다. 이렇게 그는 범어사 주지 재임시에도 원주, 조당, 선백, 감원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주지를 그만 두었던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화주 역할을 다하였다. 그리고 입적하는 순간까지도 선원에서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광식, 『오성월의 삶에 투영된 禪과 民族意識』, 『대각사상』 14, 2010, 123쪽.

려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껏 수좌들은 역사 및 자료와 무관하다는 기존 인식은 재고되어야 한다.<sup>11)</sup> 적어도 구한말 이후 근대로 접어들면서 선원의 지도자들은 분명한 역사의식과 역할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필자는 이러한 특징이 근대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범어사 금어선원의 개설 과정은 한국 선원의 근대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선원을 중심으로 한 선 수행 전통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송경허와 오성월 두 인물이 선원의 이판과 사판의 측면을 각각 담당했고, 그들의 역할이 범어사와 금어선원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선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근대불교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범어사의 선원 설립 과정은 선을 통해 조선불교의 선 수행 전통을 지켜내려는 의지의 반영인 동시에 수행자의 역사의식과 역할의식이 반영된 조선불교의 근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Ⅲ. 금어선원 운영의 근대성과 현대사의 흔적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간행한 『근대선원방함록』에는 해인사 퇴설선원, 수덕사 능인선원, 견성암 선원, 범어사 금어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도리사 태조선원 등 모두 6곳 선원의 방함록이 수록되어 있다. 방함록의 내용은 소임과 소임자 명단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지만 근대선원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금어선원의 소임 및 소임자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주목을 끈다.

첫째, 금어선원 방함록은 당시의 다른 여러 전통적인 성원 운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선원 소임에 교무(敎務), 총무(總務), 재무(財務)

11) 『근대선원방함록』, 33쪽.

등의 직책이 보이는 것이다. 비록 1956년 하안거부터이기는 하지만 금어선원 운영에 이런 직책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선원이 그 이전부터 근대적인 사찰 행정방식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구나 금어선원에는 전통적인 선원 전통에서는 꺼릴 수도 있는 강주(講主), 강원입승(講院立繩), 강사(講師) 같은 소임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선원에서는 볼 수 없는 금어선원의 근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sup>12)</sup>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는 곳으로 도리사 태조선원이 있다. 태조선원 역시 법인관리선원에 속한 선원 가운데 하나였다. 태조선원도 다른 일반 선원과 달리 농감(農監), 농막(農幕), 순산(巡山) 등의 직명이 눈에 띈다. 어떤 연구에서는 태조선원의 경우 선중(禪衆)이 줄어들어 농감, 농막, 순산 등의 직명이 생겼다고 분석하고, 선농일치적 선원운영을 했다는 맥락에서 설명하기도 한다.<sup>13)</sup> 하지만 이를 선농일치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농감 등의 소임은 선중이 줄어들어 대중운력이 어렵게 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중과 사찰 소유의 토지가 늘어나면서 수행승들이 텃밭 가꾸듯 하는 울력 정도로 농사지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사와 임업을 담당하는 전문인을 따로 두어 운영하는 근대적 선원운영 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

선농일치는 선수행자가 참선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먹거리를 직접 챙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농감 등의 소임을 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12)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자료는 송경허가 작성한 계명암 선사 청규와 1910년에 작성한 내원선원 청규이다. 당시 범어사에서는 순수 참선만을 고집하지 않고, 일정한 교학 및 경학에 대한 탐구도 함께 하였다는 사실이 이 문서에서 확인된다. 이런 사실이 사뭇 달라 보이는 송경허와 오성월이라는 두 인물이 역사의식과 더불어 묘하게 부합하는 또 하나의 지점이다. 『근대선원방합록』, 30~31쪽 참조.

13) 강문선, 「근대기 한국선원의 芳脚錄에 나타난 수행문화」, 『선문화연구』 19, 2015 참조.

사찰의 농사일을 전문 농업인에게 맡긴 것이다. 한 때 태조선원에서 산감 소임을 맡았던 당사자를 필자가 직접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도리사는 사찰 주변뿐만 아니라 근동의 여러 곳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지역민들에게 소작을 주어 농사를 짓도록 하고 소작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자신은 농감과 산감(山監) 소임을 맡아 도리사 소유의 토지와 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회고했다.<sup>14)</sup> 또 1944년과 1945년 금어선원 하안거 방함록에서는 교학을 담당하는 강주(講主) 소임도 확인된다. 이는 선수행의 방향성이 사교입선(捨敎入禪)에서 선교융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기조는 태조선원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대적인 선원 운영방식이 도입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둘째, 금어선원 방함록에는 재가자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기록이 발견된다. 1924년 하안거에 청신사(淸信士)로 표시된 두 사람이 방함록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범명이 혜담(慧潭)과 무착(無着)이라는 것뿐 더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1931년 동안거 방함록에는 강법운(姜法雲)이라는 인물이 보이고, 1954년 하안거 방함록에도 4명의 처사(處士)와 1명의 청신녀(淸信女)가 보인다. 이렇게 재가자를 참선 수행자로 받아들여 안거에 동참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 역시 금어선원 운영의 근대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셋째, 금어선원 방함록에는 정진 수좌뿐만 아니라 속인인 외호대중들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sup>15)</sup> 선원에서 수행은 단순

14) 박재현, 「한국 근현대 禪院의 한 초상: 化主와 外護의 퇴조」, 『대동문화연구』 64, 2008, 455~482쪽 참조.

15) 강문선은 속인이 방함록에 기재되는 경우는 금어선원 이외에 다른 선원에는 볼 수 없고, 이렇게 속인 처사를 방함록에 기재한 것은 대중이 감소되고 선원 운영을 위한 소임은 늘어나 이들을 대중으로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강문선, 「근대기 한국선원의 芳躑錄에 나타난 수행문화」, 『선문화연구』 19, 2015, 181 참조) 하지만 필자는 좀 다르게 본다. 다른 선원의 방함록에서도 속인이 선원 소임을 맡은 기록이 확

히 수좌들만의 공부가 아니었다. 수행을 가능케 하는 외호대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외호대중이 없으면 선원의 존립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외호대중은 외호로서 선원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방함록에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이 근대 선원의 풍경이었다.<sup>16)</sup>

외호는 대개 화주 소임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화주 이외에 다른 소임도 포함되었다. 금어선원 방함록에서 확인되는 외호 가운데 화주 소임자와 속인(俗人)만 연도별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금어선원 연도별 화주 소임자와 속인 현황 (\* 재가자는 고딕체로 표시)

안거기간	화주 소임자, 속인
1901~1935	吳惺月(化主)
1936夏/冬안거	吳惺月(化主) / 吳惺月(化主), 趙相和(磨糊)
1937夏/冬안거	吳惺月, 車雲湖(化主) / 吳惺月, 車雲湖(化主)
1938夏/冬안거	吳惺月, 車相明, 高震月(化主), 金大喜(淨桶) / 金擎山(化主) (*車相明은 車雲湖와 동일인물)
1939夏/冬안거	宋九海, 金擎山, 吳惺月(化主), 鄭相朝(淨桶) / 宋九海, 金擎山(化主), 金海善(看病), 鄭普德(掃除), 田敬錫(火臺)
1940夏/冬안거	金擎山(化主), 李春風(火臺), 鄭相朝(米監) / 宋九海, 擎山(化主), 鄭普德(掃地), 李種祐(火臺)
1941夏/冬안거	象河擎山 / 金擎山 (* 象河擎山과 金擎山은 동일인물)
1942夏/冬안거	金擎山, 朴德林(化主), 金元玉(火臺), 金萬洙(飯頭) / 金擎山, 朴德林(化主), 河錫辰(茶角), 李化春(負木)

인되고, 또 그들의 참여를 방함록에 남기는 것을 당연시 했다. 재가자가 선원에 방부를 들이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근대 선원 여러 곳에서 적지 않게 이러한 사례가 발견된다. 선학원 중앙선원과 부인선원은 말할 것도 없고, 도리사(桃李寺) 태조선원(太祖禪院)의 경우에도 1930년 동안거부터 1931년 동안거까지 방함록에 김대승화(金大乘華) 등 5명의 청신녀가 보이고, 1931년 하안거에는 김홍석(金洪錫)이라는 남자 재가자가 방부를 들인 기록이 보인다. 이관승 중심으로 선원이 운영되고 재가자의 흔적이 방함록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공고롭게도 이른바 불교정화운동(1954~1962) 시기와 겹친다.

16) 『근대선원방함록』, 33쪽.

안거기간	화주 소임자, 속인
1943 夏/冬안거	金擎山(化主), 朴化春(火臺) / 金擎山(化主), 朴化春(火臺)
1944 夏/冬안거	화주 소임자 없음, 朴化春(火臺) / 화주 소임자 없음
1945 夏/冬안거	화주 소임자 없음 / 화주 소임자 없음, 洪大植(火臺)
1946 夏/冬안거	宋九海, 李香林(化主) / 宋九海, 朴清湖(化主)
1947 夏/冬안거	凌虛壽根, 清湖楨國(化主), 金元俊(火臺), 朴錫萬(飯頭) / 凌虛壽根(化主), 李永佑(火臺), 朴錫萬(飯頭)
1948 夏/冬안거	凌虛壽根(化主), 鄭樹基(火臺), 林香山(淨桶) / 凌虛壽根(化主), 鄭樹基(火臺), 吳完根(飯頭)
1949 夏/冬안거	圓光性海(化主), 鄭樹基(火臺), 安秉日(飯頭) / 昔珠正一(化主), 鄭樹基(火臺)
1950 夏/冬안거	화주 소임자 없음, 鶴熙(園頭) / 東庵承洙, 黃義敦(化主), 鶴熙(茶角), 別男 등 재가자 3인(火臺)
1951 夏/冬안거	東庵承洙, 安吉祥(化主), 河鳳元, 金稀周(火臺) / 玄光, 安吉祥(化主), 李根用 등 재가자 5인(火臺, 飯頭)
1952 夏/冬안거	東默(化主), 金宗屹, 金容出(火臺) / 黃義敦, 林泉月, 李常樂華(化主), 宋判植(火臺)
1953 夏/冬안거	東庵承洙, 黃義敦, 林賈谷, 林福德心(化主) / 活海龍俊, 林大智華(化主), 李鳳植(火臺), 金義雄(掃地)
1954 夏/冬안거	화주 소임자 없음, 黃義敦, 李正浩, 柳承國, 黃石淵(處士), 林大智華(清信女) / 金義雄(化主), 金昌協(掃地)
1955 夏/冬안거	방함록 없음 / 화주 소임자 없음, 朴必鳳, 朴來熙(火臺)
1956 夏/冬안거	화주 소임자 없음, 朴必鳳(火臺) / 화주 소임자 없음, 朴必鳳(火臺)
1957 夏/冬안거	화주 소임자 없음, 朴必鳳(火臺) / 화주 소임자 없음, 謙山 등 재가자 4인(掃地)

앞서 설명했듯이 금어선원이 개설된 1901년부터 1936년까지 화주 소임은 오성월 한 사람이 감당했다. 그 이후로도 화주 소임은 주로 출가자가 맡았다. 재가자들은 화주 소임 이외에 마호, 정통, 체지, 화대, 부목 등 다양한 소임으로 선원 운영에 참여했다. 이렇게 선원의 외호대중에는 출가자와 재가자, 남성과 여성이 모두 확인된다. 말 그대로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하여 근대 선원의 수행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아울러 금어선원의 외호소임자를 살펴보면 한국 현대사의 흔적들이 발견된다. 위의 표를 보면, 1946년에 이향림(李香林), 1950년에 황의돈(黃義敦), 1951년에 안길상(安吉祥), 그 이후로 임천월(林泉月), 이상락화(李常樂華), 임보곡(林寶谷), 임복덕심(林福德心), 임대지화(林大智華), 김의웅(金義雄) 등의 재가자 화주가 보인다. 이중에서도 황의돈은 매우 익숙한 이름인데, 구한말 문장가로 이름 높았던 매천 황현의 7촌 조카로 한학자이면서 사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황의돈과 불교의 인연은 그의 나이 52세 때인 1942년에 오대산에 입산하여 방한암(方漢巖)에게서 불법을 사사받았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광복 후 1948년에 문교부 편수관에 임명되었고, 단국대를 거쳐 동국대 교수로 재임하던 시절 줄곧 국사와 불교를 결합하여 주로 연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어선원 방함록에서 황의돈이라는 이름은 1950년 동안거, 1952년 동안거, 1953년 하안거 1954년 하안거 등 모두 4회에 걸쳐 나타난다. 그의 안거 참여 시기는 한국전쟁 시기와 겹친다. 금어선원 방함록에는 그의 주소지가 서울로 기록되어 있고, 화주(化主) 소임을 맡아 안거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불교에 대한 그의 관심과 심취가 원인이기도 했겠지만, 안거에 참여한 시기가 한국전쟁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봐서 피난시절에 안거에 참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금어선원 방함록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현대사적으로 의미 있는 흔적은, 1950년 동안거부터 지전(知殿) 소임자가 갑자기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전(知殿) 혹은 지전(持殿)이라고 쓰는 소임은, 선방의 청소를 담당하고 예불 등 각종 의식법요(儀式法要)를 집전하는 등 사사롭고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역할이다. 금어선원 방함록의 첫 번째 기록인 1909년 하안거 방함록에 지전 소임자가 12명이나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50년 하안거까지 방함록에 나타나는 지전 소임자 인원은

1~2인 혹은 많아야 3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1950년 동안거에 갑자기 8명으로 늘어나더니 1951년 하안거와 동안거에는 각각 10명, 1952년 하안거와 동안거에는 각각 11명과 12명 등으로 불어나 이후에도 줄곧 대체로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지전 소임자로 배치되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함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불을 때고 방 안의 온도를 알맞게 맞추는 화대(火臺) 소임자도 1950년 동안거부터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화대 소임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안거만 살펴보면, 금어선원 방합록 첫 기록인 1909년 동안거부터 시작해서 1949년 동안거까지 화대 소임자는 1~2인 불과했다. 부산이 비교적 추위가 덜한 곳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그리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50년 동안거에 갑자기 화대 소임자가 6명으로 늘어났고, 1951년 동안거에도 4명이 확인된다. 그리고 1952년 동안거 이후로는 다시 1~2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정 소임자 뿐만 아니라 1950년 동안거부터 안거에 참여하는 전체적인 규모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금어선원 방합록에 기록된 내용만 근거로 할 때, 1948년 하안거와 동안거에 방부를 들인 인원은 각각 13명과 14명이었다. 이어서 1949년 하안거와 동안거에는 각각 28명과 25명이었고, 1950년 하안거까지만 해도 22명이 방부를 들였다. 그런데 1950년 동안거부터 45명으로 늘어나더니, 1951년 하안거와 동안거에는 각각 44명과 58명, 1952년 하안거와 동안거에는 89명과 52명으로 나타난다.

지전과 화대 소임자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사실은 사찰 건물이나 시설물의 증축 내지는 사찰 내 거주 인원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국전쟁 와중에서 범어사의 사격이 갑자기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난리를 피해 전국 각지에서 밀려든 출가자들이 범어사에 의탁하는 견해서 방부를 들인 것으로 보인다. 방합록에 기록된 방부를 들인 전

체 인원이 1950년 동안거부터 그 이전보다 약 2배 정도에 이르는 것을 보면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만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어선원은 선원에 교무, 총무, 재무 등의 소임을 두는 근대적인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교학(敎學)을 맡은 강주는 물론이고 재가자들까지 선원 운영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방함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금어선원이 보여주는 특징은 전통적인 선원의 운영방식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근대적 중무행정 등 근대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IV. 선학원 중앙선원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금어선원과의 관계

선학원 설립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대개 조선불교의 선풍을 수호하고 일제사찰령에 저항한 항일민족불교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한다.<sup>17)</sup> 아울러 사(寺)나 암(庵)이라는 명칭 대신에 원(院)이라는 명칭을 쓴 것도 일제의 불교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이러한 성격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항일’과 ‘민족’이라는 맥락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다른 맥락을 간과하게 된다.

선학원의 창건은 1920년대 일본의 식민지 통치정책이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되면서 각종 문화단체의 창립을 허용한 것과 관련이 있

17) “선학원 설립에는 일제 사찰령 구도에 저항하는 의식, 3.1운동에서 영향받은 민족의식이 개입되었다”, “첫째, 선학원의 설립 정신에는 사찰령 구도에 대한 저항정신을 거론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1910년대 일제 식민지 불교정책에 대한 저항정신으로도 말할 수 있다. 둘째, 한국불교 전통수호 정신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전통 선수행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강렬한 의식이 개입. 넷째, 1919년 3.1운동에 나타난 민족의 자각정신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측면이 있다. 김광식, 『선학원의 설립과 전개』, 『선문화연구』 1, 2006, 277~282쪽.

다. 선학원은 이러한 식민지 통치정책의 이완에 따라서 설립될 수 있었고, 조선총독부 당국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선학원을 ‘원’으로 칭한 것은 사찰령에 사찰의 신규창립 관련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시기에 재단법인이 된다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간섭과 통제 체제하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sup>18)</sup> 선학원의 설립 취지는 사찰령이라는 일제의 불교정책에 대항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의 발로라기보다는, 좀 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불교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sup>19)</sup>

선학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범어사와 선학원의 관계에 주목한 한 연구자는, 선학원이 범어사의 지원과 주관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불교계에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학원의 역사에서 범어사의 역할과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선학원 운영에 범어사가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은 범어사가 전국적으로 추진한 적극적인 포교 및 경제적 후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어서 선학원 설립 이전인 1910년대 임제종운동 시기부터 범어사가 선과 결부되어 급격히 부각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sup>20)</sup>

18) 김순석, 『중일전쟁 이후 선학원의 성격 변화』, 『선문화연구』 1, 2006, 313쪽.

19) 현재 선학원의 설립 취지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1921년 5월 간동포교당 보살계단에서 만공이 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불교는 완전히 식민지 총독 관할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총독의 허가 없이는, 사찰의 이전 폐합으로부터 절간에 있는 온갖 재산, 기물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손을 댈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중략) 이런 판국이래 지금 조선 중들은 자꾸만 일본 중처럼 변질이 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진실로 불조 정맥을 계승해 불려야 할 남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 우리 사찰령과는 관계가 없는, 순전히 조선 사람끼리만 운영을 하는 선방을 하난 따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부치게 된 거 였시다.” 김혜공 편, 『만공어록』, 수덕사·선학원, 1968, 50쪽. 정광호, 『근대한일불교관계사연구』, 인하대학교출판부, 1994, 191쪽에서 재인용.

이회광의 매종(賣宗)을 규탄하고 저지한다는 취지에서 1911년 1월 15일 한용운, 박한영, 진진응 등이 주도한 임제종운동은 처음에 순천 송광사에 본부를 두고 출범했다. 범어사는 임제종운동 초기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6월에 통도사·해인사·범어사를 임제종 3본산으로 하고, 임제종 임시 총무원을 범어사로 옮기는 조건으로 참가하였다. 임제종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이 범어사와 함께하려고 애쓴 배경에는 범어사가 갖고 있는 경제적 기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시 범어사는 조선후기 이래로 다양한 계(契) 활동 등으로 견고한 재정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여러 선회(禪會)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제종운동은 범어사의 경제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서 이후 경성 인사동에 임제종 중앙포교당을 개설하는 등 본격화될 수 있었다.<sup>21)</sup>

임제종 중앙포교당은 경영 본사를 범어사로 하여 1912년 5월 26일 ‘조선선종 중앙포교당’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범어사 중앙포교당으로 개명되었고 마침내 선학원으로 이어졌다. 금어선원과 선학원 중앙선원의 관계는 이렇게 임제종운동에서부터 씨앗이 뿌려졌으며, 따라서 이 양자는 서로 관련지어 연구해야 한다. 여러 연구결과와 교계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선학원과 범어사의 밀접한 관계가 확인되는 굵직굵직한 사실들만 일단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22)</sup>

1921. 05. 15. 송만공의 주도로 선학원 창설 준비 보살계 계단 마련.

김남전 2천원, 김석두 2천원 현금출연, 오성일

범어사인사동포교당 처분 건립기금 출연

1921.11. 30. 경성 안국동에 선학원 창설, 창립주역 3인방에 김남전 참여

20) 김광식, 「범어사의 사격과 선찰대본산」, 『선문화연구』 2, 2007, 139~177쪽.

21) 김광식, 앞의 논문 참조

22) 최종진, 「만해의 독립운동과 선학원: 재산환수승소판결문을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26, 2019, 7~44쪽 참조.

창건상량문 대중명단에 오성월, 김석두, 김남전, 백용성 포함

- 1922. 03. 30. 선우공제회 창립총회 주도자 가운데 오성월, 김남전, 김석호(금어선원 조실) 참여
- 1922. 11. 27. 선학원 건물(안국동 40번지 대지 190평) 범어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선우공제회 임시총회 개최, 임시의장 김석호 피선
- 1923. 03. 29. 선우공제회 제2회 정기총회 개최, 서무부 이사 김석호 선출
- 1924. 09. 15. 선학원 대지(안국동 41번지 30평) 범어사로 소유권 이전등기
- 1926. 05. 01. 선학원 재정 빈곤으로 범어사 포교당으로 전환
- 1931. 01. 21. 김적음, 선학원 인수
- 1931. 11. 16. 김적음, 범어사본산총회에 매년 6백원 본선원(本禪院) 경비보조 청구, 2백원으로 가결
- 1934. 12. 05.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으로 총독부로부터 설립허가(김남전/오성월 이사, 오성월 선학원 원장 임명)
- 1934. 범어사로 소유권 이전했던 건물과 대지 반환 요구, 범어사 거부
- 1935. 01. 05. 조선불교선종 종헌 반포, 교무부장 하동산/재무부장 김남전 임명
- 1936. 01. 15. 오성월,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제2대 이사장 추대

위에서 보듯이 설립과정에서부터 범어사와 선학원의 관계는 밀접하고 각별하다. 선학원이 창설을 준비하던 때부터 범어사 소속의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선학원 창설 당시 2천원을 출연한 김남전은 당시 범어사 경성포교당 포교사였고, 김석두는 범어사 소속 승려였으며, 범어사인사동포교당을 처분해서 선학원 건립기금으로 출연한 오성월은 범어사주지였다.

사실 선학원의 전신에 해당되는 선종포교당은 범어사포교당으로 지칭되었고, 1915년 이후 범어사와 오성월의 지원과 주관 하에 운영되었다. 선학원 창건 배경을 살펴보면 선학원은 1910년대 후반의 범어사 포교당을 계승하고 있다는 성격이 드러난다.<sup>23)</sup> 선우공제회로 출발한 선학원은 1926년 5월에 가서 범어사 포교소로 다시 전환되었다. 이렇게 선학원의 개원 이후 침체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시기에 선학원을 관리했던 주체는 범어사였다. 범어사가 김상호에게 범어사 포교당을 관리하도록 했던 것이고, 이후 선학원으로 회복된 때는 1930년 1월이었다. 선학원은 김적음이 재건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범어사 출신의 김상호라는 인물이 있었다.<sup>24)</sup>

김적음은 1931년 1월에 선우공제회를 인수했고, 11월 8일에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모색하며 범어사에 매년 육백 엔의 경비 보조를 요청했다. 범어사 본사 총회에서는 사중의 상황을 감안하여 매년 이백 엔씩을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김적음 등은 이 금액과 선우공제회의 재산으로 되어 있던 토지와 성금 그리고 여러 사찰에서 기탁한 토지 등을 모아서 1934년초에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동년 12월 5일에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으로 인가를 받았다.<sup>25)</sup> 허가 당시 김남전과 오성월이 이사로 임명되었고 오성월은 선학원 원장을 겸했다. 이렇게 선학원은 창설에서부터 재단법인으로 정식 허가 받을 때까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범어사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다.

농지와 임야가 사찰경제의 전부였던 시절에, 경성 한복판에 갑자기 설립된 선학원이 물적 토대를 충분히 갖추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2000년에 발간한 『선원총

23) 김광식, 『오성월의 삶에 투영된 禪과 民族意識』, 『대각사상』 14, 2010, 113쪽.

24) 김광식, 앞의 논문, 114쪽.

25) 『법보신문』 2007. 09. 26, ‘조선불교 선종(禪宗)의 창종’; 박재현, 『한국 근대 불교의 타자들: 사관승과 대처승의 퇴조』, 『철학사상』 28, 2008, 131~159쪽 참조.

람』에는 1935년에서 1943년까지 전국 선원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935년 첫 해에 전국적으로 여섯 곳의 선원이 법인관리선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범어사 금어선원으로 포함해서 수덕사선원, 도리사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대승사선원, 정혜사 능인선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법인관리선원은 1942년까지 10곳 내외로 늘어났다. 이들 지방의 법인관리선원이 중앙선원 운영비 명목으로 선학원 운영경비를 상당부분 조달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6)</sup>

일제의 사찰령에 의하면, 각 사찰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은 반드시 총독의 인가를 받은 다음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sup>27)</sup> 1925년 발간된 『조선승려수선제요(朝鮮僧侶修禪提要)』에 적힌 기록에 의하면 그 즈음에 56곳의 사찰에 선원이 운영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곳이 일반선원으로 운영되던 곳들이었다. 이들은 사찰에 부속되어 당연히 사찰령에 적용 받았을 것인데, 이에 비해 여섯 곳의 법인관리선원은 법인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사암(寺庵)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나 지원은 일정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재산 처분 같은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찰령의 통제권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법인관리선원이라는 합법적 통로를 통해 금어선원은 중앙선원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다.

1931년 김적음이 범어사본산총회에 본선원(本禪院) 경비보조 명목으로 매년 6백원을 청구했고 2백원 지원으로 가결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범어사는 중앙선원을 책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어사가 이전에 안국동에 범어사중앙포교당을 두었듯이 선학원을 범어사

26)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논문을 참조 박재현, 『한국 근현대 禪院의 한 초상: 化主와 外護의 퇴조』, 『대동문화연구』 64, 2008, 455~482쪽.

27) 유병덕, 『일제시대의 불교』, 『한국불교사상사』, 승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사업회, 1975, 1165쪽.

중앙선원으로 운영했다고 보는 것이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이해가 될 것이다.

중앙선원과 금어선원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봐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들 두 선원의 안거 수행 기록이 겹치는 1934년 동안거부터 그 이후로 조실(祖室)과 선덕(禪德) 등 선원의 지도급 인사들을 방함록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중앙선원과 금어선원 방함록의 주요인물

(이름 표기는 속성+법호로 통일, ‘•’는 소임자 없음 표시)

안거 기간	범어사 금어선원		선학원 중앙선원		비고
	祖室	禪德	祖室	禪德	
1934 冬	奇昔湖	鄭暉峰	滿空月面	韓基善	影峰은 英峰의 오기로 보임
1935 夏/冬	奇昔湖/ 河龍峰	鄭英峰/鄭英峰, 李德山	"	吳惺月, 薛石友, 鄭雲峰, 金南化, 李春城, 朴石頭/ 吳惺月, 金南泉, 薛石友, 康道峰, 鄭雲峰, 朴石頭	吳惺月 本寺 범어사
1936 夏/冬	• /白龍城	李德山, 白獅雄/ 鄭英峰, 朴德雲, 朴石頭	"	吳惺月/李石岩(庵)	德山, 獅雄은 법명
1937 夏/冬	白龍城/ •	孫鳳雲, 白獅雄/ 鄭英峰, 白獅雄	"	金擎山, 金九河, 姜(康) 道峯, 許鏡湖/金擎山, 金九河, 康道峯, 許鏡湖	金擎山, 許鏡湖 本寺 범어사
1938 夏/冬	• / •	金擎山/鄭英峰, 李德山, 孫雲虛	"	崔普鏡, 金擎山, 金九河, 康道峯, 許鏡湖/宋六如, 康道峯, 許鏡湖	宋六如 本寺 범어사
1939 夏/冬	• / •	• /李德山, 金枕松	"	康道峯, 許鏡湖, 奇昔湖, 朴石頭/韓寶鏡, 張 震化, 金枕雲, 朴石頭	奇昔湖 本寺 범어사
1940 夏/冬	• / •	李德山/ •	"	康道峯/朴石頭	
1941 夏/冬	河東山/ 河東山	金一光/金一光	"	李淳浩/李淳浩	

안거 기간	범어사 금어선원		선학원 중앙선원		비고
	祖室	禪德	祖室	禪德	
1942 夏/冬	河東山/ 河東山	金一光/金一光	〃	康道峰,釋大愚/康道峰, 張雪峰	釋大愚 本寺 범어사
1943 夏/冬	〃	吳惺月/ ●	〃 /	康道峰,張雪峰/미확인	1943冬~1944 冬 중앙선원 방함록 확인불가
1944 夏/冬	〃	● / 金蓉峰,金枕松		미확인	金蓉峰은 1944년 하안거에 講主 소임
1945 夏/冬	〃	金梵山 <sup>28</sup> / ●	〃	康道峰,惠庵,張雪峰/ ●	金蓉峰은 1945년 하안거에 講主 소임
1946 夏/冬	〃	姜永明/姜永明	●	● /康道峰	
1947 夏/冬	河東山/ 河東山	姜永明/姜永明	●	康道峰/康道峰,張雪峰	
1948 夏/冬	河東山/ ●	● / ●	●	康道峰/康道峰	
1949 夏/冬	〃	眞空在煥/ ●	●	康道峰/ ●	1949년 이후로 금어선원 방함록 속성 확인 불가
1950 夏/冬	〃	京庵仁錫/ ●			
1951 夏/冬	〃	東隱學俊/東隱 聖印,默雷白牛, 圓鏡相告			東隱學俊과 東隱聖印은 동일인물
1952 夏/冬	〃	東隱聖印,秋月 完洙,幻峯鏡人/ 秋月完洙,寶城 延鎬,大呵愚惺, 韶天			耘虛龍夏가 教授師, 조실 바로 다음 위치

안거 기간	범어사 금어선원		선학원 중앙선원		비고
	祖室	禪德	祖室	禪德	
1953 夏/冬	"	養鶴孝璇/養鶴 泰俊			
1954 夏/冬	"	東隱聖印,眞空 祥律/東雲,河溪 啓星			
1955 夏/冬	"	東雲,河溪啓星/ 眞空,圓鏡相浩, 永濟忠念,米山 相根			
1956 夏/冬	"	眞空在煥/慧月 道蓮,圓鏡相浩, 智山長壽	● /李曉峰	● /金寂音	
1957 夏/冬	"	慧月道蓮,/慧月 道蓮,性昊			
1958 夏/冬					
1959 夏/冬			李曉峰/ ●	靑潭,月下,碧眼,昔珠, 慶山,聽雨 ●	
1960 夏/冬			河東山/ ●	靑潭 ●	
1961 夏/冬			河東山/ 河東山		
1962 夏/冬			河東山/ 河東山		
1963 夏/冬			李曉峰/ 李曉峰		
1964 夏/冬			李曉峰/ ●		
1965 夏/冬			李曉峰/ ●		
1966 夏/冬			李曉峰/ ●		
1967 夏/冬			"		

앞에서와 같이 금어선원과 중앙선원 방함록을 비교분석해 보면 두 선원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물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먼저 1934년과 35년 금어선원 방함록에 조실로 기재되어 있는 기석호(奇昔湖)는 1922년 오성월, 오이산(吳梨山) 등 범어사 승려들과 함께 선우공제회를 창립한 주역이었다. 출생연도와 출생지도 불분명한 그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가 바로 1921년 선학원이 창설된 이후부터였다. 그는 1927년 금어선원 하안거와 동안거에 선감과 조실 소임을 맡았고, 1934년과 그 이듬해에도 금어선원 조실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1939년 중앙선원 하안거 방함록에서 선덕 소임으로 나타난다.

또 범어사 주지로 있으면서 금어선원의 살림을 총괄했던 오성월도 1935년부터 중앙선원에 방부를 들여 선덕으로 활동했던 것이 확인된다. 오성월의 이름은 범어사 금어선원은 물론이고 선학원과 선우공제회 창립 등의 과정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그가 서울의 선학원과 부산 범어사를 잇는 경부선 축을 바쁘게 오갔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중앙선원에는 안거철마다 김경산(金擎山), 허경호(許鏡湖), 송육여(宋六如) 처럼 범어사를 소속 본사로 하고 있거나 또 강도봉(康道峯)처럼 범어사와 깊은 관계를 가진 이들이 방부를 들이고 선덕 소임을 맡아 선원 운영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방함록을 통해 확인된다.<sup>29)</sup>

28) 金梵山은 金法麟이다. 김법린은 범어사와 선학원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1912년에 銀海寺로 출가했고, 이후 梵魚寺 내의 근대식 교육 기관인 明正學校에서 중학과정을 다닌 후, 범어사 講院에서 四敎科를 수료했다. 오랜 유학생생활에서 돌아와 1936년에는 범어사불교전문강원 학감직을 맡기도 했다. 그의 파리 소르본대학 학적부에 기록된 보호자의 주소가 한용운이 거주하던 선학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그가 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만해를 중심으로 한 선학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광복직후에도 그는 禪學院에서 서울의 유지승려들과 함께 중권 접수에 착수했고, 1945년 8월 19일에 李鍾郁으로부터 중권을 인계받았다. 김상현, 『金法麟과 한국 근대불교』, 『한국불교학』 53, 2009, 5~30쪽 참조.

29) 康道峯은 선학원 설립 당시 석왕사 경성포교당에 주석하고 있었는데, ‘왜정시대 인물

또 범어사 선풍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하동산(河東山)은 1941년부터 금어선원 방함록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1957년까지 빠짐 없이 조실 자격으로 금어선원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어서 1960년에서 1962년까지 중앙선원에서 조실 소임을 맡았던 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조실과 선덕 등 선원의 지도급 인사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금어선원과 중앙선원은 같은 인물들에 의해 수행 선풍이 주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한국의 근대불교는 법인관리선원의 출현이라는 주목할 만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근대선원은 선학원 중앙선원이 대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학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과 수행 선풍 등 전반에 걸쳐 범어사가 주도했고 그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한국 근대불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범어사와 금어선원의 성격 규명 및 중앙선원과의 관계에 대한 규명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금어선원을 비롯해서 범어사의 산중 선원이 개설 및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근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사관승인 오성월의 역할이 지대했다. 그는 근대적 시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선사(禪社)를 개설하고 경허선사를 초빙하여 근대적 선풍을 구현했다. 오성월과 송경허는 출가 수행자라도

---

사료(倭政時代人物史料)에 게재 된 내용에 따르면 만해 한용운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로 나타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http://db.history.go.kr/id/im\\_114\\_00232](http://db.history.go.kr/id/im_114_00232)). 강도봉은 1900년대 중반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 해인사와 범어사 등 남방에 머물러 선교를 두루 익혔는데, 1913년 2월 10일 금정산 범어사에서 대학교과를 졸업했고, 1918년부터 석왕사 경성포교당 포교사 소임을 맡아 상경해 있었다.

역사의식과 역할의식을 잃지 않는 선(禪)을 구현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특징은 방함록과 선원 운영 방식 등에서 확인되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 선불교 내부에서 근대성을 모색하고 구현한 사례로 주목된다.

금어선원에서 나타나는 한국불교의 근대성은 선학원 중앙선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 전국화 되었다. 금어선원은 1930년대 여섯 곳의 법인관리선원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중앙선원은 법인체라는 법적 테두리와 전국에 분포된 여섯 곳의 법인관리선원의 재정적 뒷받침 위에서 운영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선학원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동원된 인적 물적 자원의 대부분은 범어사 금어선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앙선원의 운영과 선풍 진작 등 전반에 걸쳐 금어선원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범어사 금어선원과 선학원 중앙선원은 근대성을 담아낸 한국 선원의 대표적 풍경이 되었다.

## | 참고문헌 |

『鏡虛集』, 韓佛全11

강문선(혜원), 「근대기 한국선원의 芳岫錄에 나타난 수행문화」, 『선문화연구』 19, 2015.

김광식, 「범어사의 사격과 선찰대본산」, 『선문화연구』 2, 2007.

\_\_\_\_\_, 「선학원의 설립과 전개」, 『선문화연구』 1, 2006.

\_\_\_\_\_, 「오성월의 삶에 투영된 禪과 民族意識」, 『대각사상』 14, 2010.

김상현, 「金法麟과 한국 근대불교」, 『한국불교학』 53, 2009.

김순석, 「중일전쟁 이후 선학원의 성격 변화」, 『선문화연구』 1, 2006.

김혜공 편, 『만공어록』, 修德寺 禪學院, 1968.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근대선원방함록』,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2006.

- 박재현, 『한국 근대 불교의 타자들: 사관승과 대처승의 퇴조』, 『철학사상』 28, 2008.
- \_\_\_\_\_, 『한국 근현대 禪院의 한 초상: 化主와 外護의 퇴조』, 『대동문화연구』 64, 2008.
- \_\_\_\_\_, 『현대 한국사회의 당면 문제와 경허(鏡虛)의 사상: 사회 윤리적 맥락을 중심으로』, 『禪學』 34, 2013.
- 유병덕, 『일제시대의 불교』, 『한국불교사상사』, 송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사업회, 1975.
- 정광호, 『근대한일불교관계사연구』, 인하대학교출판부, 1994
- 조명제,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梵魚寺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13, 2006.
- 최종진, 『만해의 독립운동과 선학원: 재산환수승소판결문을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26, 2019.
- 한태식(보광), 『백용성스님과 한국불교의 계율문제』, 『대각사상』 10, 2007.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im\\_114\\_00232](http://db.history.go.kr/id/im_114_00232), 검색일: 2021. 04. 01)
- 『법보신문』 2007. 09. 26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31>, 검색일: 2021. 04. 01)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홈페이지(<https://www.beomeo.kr>, 검색일: 2021. 04. 01)

투고일 : 2021. 04. 23. 심사완료일 : 2021. 06. 23. 게재확정일 : 2021. 07. 07.

| Abstract |

Modernity of Modern Korean Seon Chamber through the  
Geumeoseonwon

Park, Jae-Hyeon

The Geumeoseonwon (金魚禪院) at Beomeosa (梵魚寺) templ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modernity of Korean Buddhism. The Beomeosa temple hold a large numbers Seon meeting (禪社) in Korean modern Era, the two people who showed distinct actions in this process were Ven Gyeongheo (1849~1912) and Ven Sung-wol (1865~1943). They succeeded in the practice of Seon Buddhism in Korea, and at the same time actively responded to changes in the modern era, striving to realize a modern sensation that maintains a sense of history and role.

The aspect of modern Seon center, which began in the Geumeoseonwon, became more concrete and nationalized with the opening of the Seonhakwon (禪學院).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establishment of the Seonhakwon was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at the same time as a buddhist historical event. The Seonhak had a legal identity as a foundation, and took a modern temple operation that introduced the mutual aid form of mutual aid or cooperative management. The historical meaning it shows can be found in that it shows the modernity of Korean Buddhism.

The Geumeoseonwon and Seonhakwon are closely rela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ffic communication, Seoul and Busan were geographically far apart, but were the closest cities. The Geumeoseonwon expanded the modern temple operation system to Seoul, thanks to the

modern traffic network, and the concrete result was the Seonhakwon. These two monasticism have sufficient conditions to grasp the modernity of Korean modern Seon meeting.

**Key Words** : Modern Buddhism, Modernity, Seon, Beomeosa temple, Geumeoseonwon, Seonhakwon